



2020년 11월 1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12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

2020. 11. 12.(목)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

※ 부처별 담당자 · 연락처는 붙임 참조

### 〈 혁신형 강소 · 중견기업 육성으로 “허리가 튼튼한 경제” 실현 〉

## 한국판 뉴딜 주역으로 강소 · 중견기업 글로벌 혁신 도약

### -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「혁신형 강소 · 중견기업 성장전략」 발표 -

- 2030년 강소·중견기업군 매출, 수출, 일자리 등 경제기여도 30% 달성
  - ‘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1,000개, 디지털·그린뉴딜, 소부장 등 차세대 유망기업 12,000개, 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
  - 중소기업 대상 시설투자자금 지원규모를 ‘21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 
(‘20년 8300억원)
  - 소부장 등 혁신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(30→150억원) 등 지원 확대

□ 정부는 11.12일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「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을 발표하였음

- 이번 성장전략은 기업 성장 전주기적(중소·벤처→중견→글로벌 전문기업) 관점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고,
-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(중소, 중견 등), 특성(업종, 지역 등)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음

## 【 수립배경 】

- 4차 산업혁명 진전, 코로나19 팬더믹은 기업 성장에 위기와 기회요인을 유발\*하면서 민첩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“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

\* 디지털화 핵심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부각,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新서비스 등장 등

- 한국판 뉴딜의 실행, BIG3·소부장 산업 육성, 대·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도 강소·중견기업의 역량에 달려있음

- 그간 정부는 강소·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대변혁의 시기에 위축될 수 있어,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주역인 강소·중견기업에 대한 신성장전략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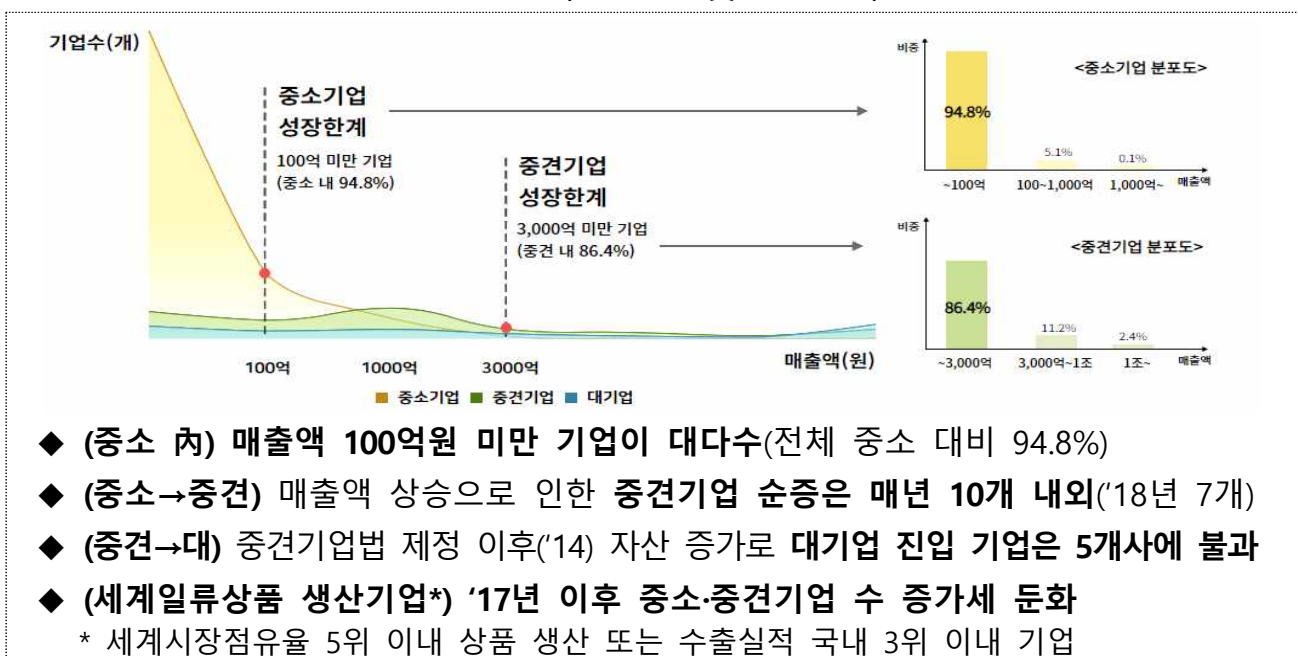
## 【 기업 성장현황 및 정책방향 】

- 정부는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시켰으나,

\* 전체기업 중 중소·중견 매출 비중(금액) : '15년 50.3%(2,150조원)→'18년 52.7%(2,581조원)

- 여전히 중소기업 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약 95%로 대다수이고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미미한 상황이며, 세계일류상품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출현도 둔화되고 있음

< 중소·중견기업 분포 및 성장한계 >



□ 이에, 코로나19 이후 시대상에 부합한 기업규모·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

- ① 중간 이상 규모로 혁신의지가 큰 기업(매출 3,000억원 내외)은 대기업 납품중심 성장을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경로 개척을 지원
- ② 중간 규모의 잠재적 유망기업(매출 500억원 내외)은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하여 단절없는 성장을 촉진
- ③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있는 기업(매출 100억원 내외)은 초기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인력·기술 등을 집중 지원
- ④ 지역주력산업 중소·중견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“지역균형 뉴딜”의 주역으로 육성
- ⑤ 아울러, 기업간 또는 기업과 혁신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전환 등 자발적인 개방형 혁신을 유도

## 【 비전 및 추진전략 】

- “강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”이라는 비전하에 「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을 추진할 계획임
- ①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, ②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의 성장 가속화, ③매출 100억원 허들의 극복 지원, ④지역·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,
  - 이를 통해, 핵심 허리층(이노비즈(기술혁신형 중소기업), 중견기업)의 경제 기여도를 2018년 20%대에서 2030년 30%로 끌어올리고자 함

비전	강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
목표	<p>▶ 2030년 허리층 기업군(Inno-biz, 중견) 경제기여도 30% 달성</p> <p>* 매출/수출/일자리 : ('18년) 21.5%/24.5%/21.3% → ('30년) 30%</p>
추진 전략	① 전통사업·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
	②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 성장 가속화
	③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
	④ 지역·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

## 【 중점 추진과제 】

### 전략 1.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

#### ◇ 전통사업·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

- **(월드베스트 전문기업)** 디지털·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①혁신제품 개발, ②트랙 레코드 확보, ③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할 계획임

- 우선 총 1.5조원을 투자하여 강소·중견기업의 대표 R&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및 ATC(우수기업연구소)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\*

\* 신산업, 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 강화, 컨소시엄 등 연대와 협력에 중점



-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'혁신제품'으로 선정\*하고,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하여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

\* 혁신제품 혜택: ①수의계약, ②구매 면책, ③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

- 또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('20년 220억원 → '21년 250억원)하고 '수출개척기업'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임

⇒ 이를 통해, '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·중견기업 1,000개를 달성할 계획임('19년 698개)

- **(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챌린지)** 자체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한국판 뉴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(정출연 등)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&D 협력을 지원할 계획임

- 우선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(R&D 방향, 전략 등)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
  - \* ('20년) 7개 공공연구기관 매칭→ 20여개 중견기업의 투자계획(약 1천억원 규모) 창출
- 또한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&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임('21년)
  - \*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연구년 교수(年 3,000여명)인력 중점 활용
  - \* 사례 : 인텔 랩렛(Lablet)은 연구년 교수를 소장 등에 임명, 기업필요 최첨단 연구 수행

□ **(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)** 해외 혁신기업·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·중소기업을 위해 독일·이스라엘·러시아 등 소·부·장 강국에 기술협력거점\*을 구축하고 R&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함

\* '한-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' 개소('20.6), 이스라엘 현지 거점설립 추진('21)

- 독일의 경우 '한-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' 개소를 완료하였고('20.6), 이스라엘에도 '21년중 현지 벤처·투자사 등과의 협력거점을 구축할 예정임



-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 중 디지털 뉴딜,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 R&D Track을 신설('21년 172억원)하여 지원할 계획임

□ **(신사업 등대 프로젝트)** 중소·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사업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임

- ①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, ②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발굴, ③디지털전환 수요-공급기업간 매칭, ④해외진출 경험·노하우 공유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, ⑤사업전환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'24년까지 100개 신사업발굴 사례 창출



## 전략 2.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

### ◇ 국가전략분야 혁신기업군의 단절없는 성장 촉진

- **(차세대 혁신기업)** 디지털·그린 뉴딜,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'24년까지 12,000개를 발굴·육성할 계획임
  - 태양광·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,500개, TIPS기반 벤처·스타트업 3,100개, 소부장 으뜸·강소·스타트업 400개 등을 지원
- **(이어달리기)** 산업부(중견, 산업), 중기부(중소, 벤처), 과기부(ICT·SW), 특허청(IP) 등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
  -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가점부여·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, 후속지원도 추진
  -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'데이터 뱅크'를 통해 투자유치, 협력 파트너 발굴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



- **(제도적 환경 조성)**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특례보증\*을 적용(30→150억원)하고,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\*\*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겠음

\*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선정시 소부장,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추천(산업부)

\*\* (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·재산세 감면) '초기 중견기업' 구간 신설(現, 중소/중소외)

- 그 외 정부 R&D 민간부담금, 청년인력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
-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,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임

### 전략 3.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

#### ◇ 성장 첫 관문인 '매출 100억원 허들' 극복

□ **(인력)**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,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하겠음

-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(60→75점) 등을 추진

< 참고 : 내일채움공제 협업모델 사례 >

- 대전시는 270개 지역기업의 594명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원
- 한국남동발전은 73개 협력사의 188명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

-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('20. 67개 → '21. 72개),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,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('22) 등을 할 계획임

-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석·박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연계·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할 예정임('24년까지 9,000명)

□ **(R&D)** 투자형·후불형 R&D, 미드테크 분야\* 신제품 개발 지원, ICT 융합 R&D 바우처 지원 확대('20. 128억원 → '21. 547억원), 스케일업 기술사업화('21~'28년, 1924.6억원)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·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겠음

\* (Mid-Tech)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
□ **(자금)**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·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음

-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'21년 1조 1,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'21년 1조 4,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겠음

\* 시설투자 : '20년 8,300→'21년 1조1,500억원 / IP담보 : '20년 1조원→'21년 1.4조원

□ **(판로)**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, 온라인 수출 활성화,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함

- 특히,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2개소(국내외 각 1개) 신설하여 홍보·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('20. 3.8억원 → '21. 62억원)

## 전략 4. 지역·사회 앵커기업 육성

### ◇ 지역·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

- **(지역)**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·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하여 R&D·사업화·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음
  - \*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,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(~'22년)
-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('20)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에 적용('21~)할 예정임
- **(사회)**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명문(名門)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\*을 통해 모범사례를 홍보하겠음
  - \* 중견만리(中堅萬里)('20.10~11월), 사장님이美쳤어요 시즌4 ('20.12~'21.1월) 방송(KBS1)
-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(건설업 등)을 폐지하고 현재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

### 【 추진체계 】

- 관계부처 합동 “글로벌 강소·중견 성장지원단\*”을 구성하여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음
  - \* 단장(국조실 국무2차장),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(간사 : 산업부·중기부 공동 국장급)으로 구성
- 민간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목요대화(국무총리 주재)를 활용하여 업계,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나갈 계획임

붙임 : 1. 부처별 담당자

2. 「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 인포그래픽
3. 「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 요약
4. 「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안드레 사무관(☎ 044-203-43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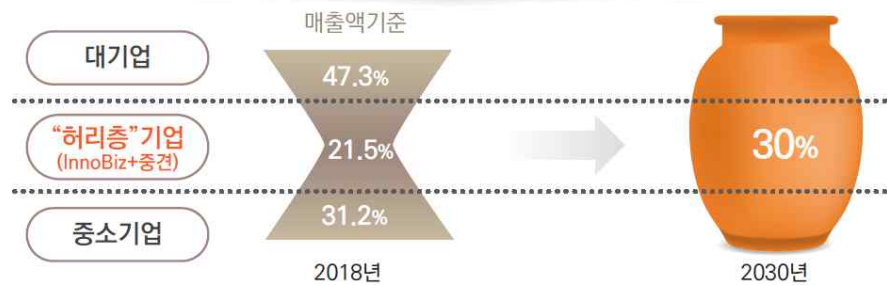
**붙임 1**
**부처별 담당자**

기 관	부 서	담당자	연락처
산업부	중견기업정책과	김홍주 과 장	044-203-4360
		안드레 사무관	044-203-4361
		박정진 사무관	044-203-4369
중기부	정책총괄과	조경원 과 장	042-481-4537
		곽성원 사무관	042-481-4504
과기부	정보통신산업기반과	곽병진 과 장	044-202-6240
		상은혜 사무관	044-202-6244
기재부	산업경제과	김명규 과 장	044-215-4530
		배준혜 사무관	044-215-4534
행안부	지방세특례제도과	김정선 과 장	044-205-3851
		전제범 사무관	044-205-3856
국토부	기업성장지원팀	정수호 팀 장	044-201-3252
		박지은 사무관	044-201-3264
환경부	녹색전환정책과	정은해 과 장	044-201-6678
		김영환 사무관	044-201-6692
교육부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천범산 과 장	044-203-6883
		김홍오 사무관	044-203-6313
고용부	청년고용기획과	윤영귀 과 장	044-202-7440
		조경선 사무관	044-202-7458
문체부	저작권정책과	이재순 서기관	044-203-2478
해수부	기획재정담당관	송준석 서기관	044-200-5121
금융위	산업금융과	선 욱 과 장	02-2100-2868
		이영민 사무관	02-2100-2865
공정위	경쟁정책과	황원철 과 장	044-200-4300
		윤창호 사무관	044-200-4305
특허청	산업재산정책과	윤종석 과 장	042-481-5168
		박찬숙 사무관	042-481-5270
조달청	기획재정담당관	김응걸 과 장	070-4056-7067
		송지혁 사무관	070-4056-7027
국조실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윤현주 과 장	044-200-2211
		김형관 사무관	044-200-2227

항아리형 경제

## 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

**비전** | 강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  
(2030년 경제기여도 30% 달성)



### “연대와 협력” 기반으로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추진

